

AMAMI PARK

Kagoshima-Prefectural Amami Nature And Culture Center

종합 전시홀 한글 설명문.



종합 전시홀 한글 설명문.

아마미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우뚝 솟은 산을 배후로 마을이 들어서 있다. 바다, 마을, 산의 순서로 된 지형 구조는 아마미의 역사·민속·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종합 전시홀이란 아마미 마을을 모델화한 것으로 ‘바닷길’ ‘테마 월’ ‘섬길’ ‘숲길’ 종류의 테마를 만들어 실물 크기의 모형과 사진, 영상을 통해 아마미를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종합 전시홀을 만든 취지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이 지역 사람들, 특히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 아마미의 역사를 포함, 독자적인 풍습과 민속,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고시마 본토에서 타이완까지 약 1200km 에 걸쳐 징검다리처럼 줄지어 있는 섬들. 이 섬들 중 한 가운데에 아마미군도가 있다. 아마미군도란 기카이지마, 아마미오시마, 가케로마지마, 요로지마, 우케지마, 도쿠노시마, 오키노에라부지마, 요론토로 사람이 살고 있는 8 개의 섬을 가리킨다.

아마미군도는 쿠로시오해류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옛부터 사람들이 왕래하며 물건을 나르는 교통과 무역의 중계지 역할을 해왔다.

남동지역의 물건을 사러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전한 문화와 쿠로시오해류를 타고 남쪽에서 건 너온 문화가 만나 아마미 문화로서 새롭게 태어났다.

풍요를 부르는 바다 저편의 이상향 네리야카나야, 자매(우나리)가 형제(이히리)를 지키는 우나리신 신앙과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노로신 축제.

「아마미의 정신」은 자연에서 얻은 풍부한 자원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아마미 촌락의 대부분이 배산임수 지형이다.

마을 뒤편에는 카미야마(神山)로 불리는 산이 있다. 이곳에는 촌락을 지키는 신인 테루코 신(山幸神, 산의 산물)과 나루코신(海幸神, 해산물)이 있다.

아득히 먼 바다 저편에는 신이 사는 풍요의 나라 네리야카나야가 있다. 바닷가에 서면 신이 마을로 오실 때 거쳐오는 섬과 바위가 보인다.

마을 근처 숲과 이노오(암초 호수)까지가 인간 세계이며 그 다음은 신의 세계.

산과 바다 사이에서 사람들은 발을 경작하고, 자연의 혜택을 벅삼아, 신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 왔다.

마을 중심부에는 마(신을 모시는 청정한 공간)와 토네야, 아샤게 같은 마을의 제사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카미야마(산)와 해변으로부터 각각 카미미치(신이 걷는 길)가 마로 향해 뻗어있는데 축제 때 이 길을 통해서 신이 마을로 오신다.

사람들은 신을 맞이하고 대접하며 다시 신의 세계로 배웅한다.

마을은 신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마을에는 신이 머무는 신성한 강과 샘, 바위, 거목 등도 있다.

자연현상이나 세상사에는 영적인 것이 있어, 모든 현상은 그 영적인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믿는 정령신앙과 마을을 지키는 노로신앙이 지금의 섬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예로부터 아마미 사람들은 달이 차고 기우는 것, 별의 움직임, 계절풍, 철새의 도래 등을 읽으면서 생활해 왔다.

양력이 일반화된 지금도 아마미에서는 대부분의 제사나 행사를 음력으로 지내고 있다. 겨울.

음력 12 월 정월대지(설날 음식, 음력 12 월 27 일부터 설날에 먹을 돼지를 잡아 손질.)로 시작하는 신년 행사.

아마미는 신년을 맞이한다.

흑설탕을 만드는 최적기.

봄.

모내기, 사탕수수와 고구마를 심는다.

음력 3 월 3 일, 벼농사 농작물의 해충을 몰아내는 행사, 네리야카나야에서 신을 맞이해 대접하고 배웅하는 노로신 제사, 오무케와 오후리.

여름.

그해 처음으로 익은 벼이삭을 기념해 지내는 아라호바나와 노로수확제인 후우움메, 미냐쿠치.

조상을 맞이하는 백중.

그리고 벼수확을 마친 사람들은 미하치가츠를 즐긴다.

가을.

여행을 떠난 가족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하마간(浜願)을 해변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겨울.

고구마 수확감사제로서 일년 중 마지막 노로신 축제인 후유움메.

날실과 씨실의 치밀한 교차작업에 의해 한 장의 천이 만들어지듯이, 노로신 제사·유타의 기도·명절·의례 그리고 일상생활이 쌓여 아마미의 풍요로운 1 년이 완성된다.

노로: 아마미가 류큐(오키나와)국이었을 때, 왕이 임명한 직책으로 당시 국가 행사를 담당했던 카민츄(神人).

‘자매는 신이다’ 라는 우나리신 신앙의 관념을 기반으로, 16 세기에 류큐왕국에 의해 제도화된 공적인 신의 조직.

류큐왕국의 尙眞王(서신왕, 1477~1526)시기에 왕의 자매가 가장 최고직위인 聞得대군(키코에노오오기미)의 자리에 올랐다.

그 아래로 大阿母(오오아무시라레)나 노로신이 각각 류큐국왕으로부터 임명되었다.

노로신은 여성만이 가능하며 세습제인 것이 특징이다.

유타: 신지핀 상태로 신령이나 영령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와 직접 접촉·교류해, 점술이나 액막이를 통해 개인의 고민이나 괴로움을 풀어주었다.

바닷길.

아이노코(일본식과 서양식을 절충한 배).

아마미의 기카이지마, 오키노에라부지마, 요론토를 제외한 나머지 섬은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처럼 도로와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때, ‘바닷길’은 교류·교역·운반의 통로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왕래와 고기잡이 등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해상교통의 최고봉은 배다.

아마미에는 아주 오래된 아마미 고유의 배가 있다. 이 배는 쇼와 초기까지 사용되었으며 역사적으로 큰 활약을 하였다.

아마미에는 스부네, 이타츠키, 아이노코로 불리는 섬 고유의 배가 있다.

스부네는 나무에 구멍을 뚫어 만든 배이다.

주로 어업에 이용되었던 듯하다.

굉장히 무겁고 잘 흘러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지는 않았다. 대신에 섬 근처 바다나 만, 이노(바닷물이 권 곳)처럼 물결이 잔잔한 곳에서 사용되었다.

스부네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라는 의미라고 전해진다.

이타츠키는 (판자가 붙어 있는 배)배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모양이 같으며 배 밑바닥이 얇다. 주로 운반에 사용되었다.

이타츠키는 작은 배부터 큰 배까지 크기가 여러가지이다.

이타츠키의 특징은 전·후면의 모양이 같고 평평하다는 것이다. 물결 타기가 어려워 속도가 느린 반면에 묵직한 안정감이 있어 아마추어도 빨리 적응할 수 있다.

요즈음에 「이타츠키」라고 하면 이는 「아이노코」를 가리킨다.

아이노코는 예전의 아타츠키와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전통적 어선인 「사바니」의 장점을 접목해 만든 배이다. 고로 아이노코로 불린다.

사바니는 빠르고 물결을 잘 타지만, 흔들거려 아마추어가 타면 뒤집어지기 쉽다.

오키나와의 이토만 어부들은 사바니를 타고 멀리 외국까지 고기를 잡으러 갔다. 전복돼도 바로 배를 일으켜 세우는 기술과 도구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숙련된 기술이 있었다.

아마미섬 노래의 일인자이자 아마미군도에서 아이노코배를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대목공 츠보야마 유타카씨에게 아마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이쇼 시대, 아이노코를 고안해 제작한 사람이 츠보야마씨의 목공 스승인 휴우가인(미야자키현 출신)에비하라 만키치씨이다.

그는 미야자키에서 오키나와로 건너가 이토만 어부들의 보물인 사바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야마토촌 오가네쿠의 사람과 결혼해 그곳에 정착했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는 사바니가 훌륭하다는 것은 알지만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손에 익은 이타츠키 선체를 이용해 사바니의 장점인 뱃머리 구조를 접목하는 방법으로 배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배는 사용하기 편리했기 때문에 주문이 늘었다.

이후 이타츠키가 아이노코로 바뀌었다.

츠보야마씨는 20 살 때 견습생으로 들어가 지금까지 55 년간 아이노코배를 만들어 왔다.

지금까지 만든 배가 1900 척이상 .

아이노코배는 미야자키현에서 삼나무를 가져다 반년간 건조시켜 사용하는 -전통을 지키기위한 -그의 고집과 어부들에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그의 감과 숙련된 기술로써 만들어졌다.

지금은 이타츠키를 본딴 강화플라스틱(FRP)배가 나왔지만, 아이노코는 섬의 전통행사와 배젓기 등 경기용으로서 지금도 쿠로시오문화와 함께 계승되고 있다.

아샤게.

아마미오시마 각 마을 중심부에는 마라는 광장이 있었다. 처음에는 궁이라는 의미였지만, 나중에 정원이나 광장이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아샤게란 마 옆에 세워진 사각형 오두막으로, 각 마을에서 신을 초청해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말한다.

아마미에서는 음력 2 월 바다 저편에 있는 이상향 네리야카나야에서 풍요를 부르는 바다 신이 배를 저어 다테가미로 불리는 바위산(사공처럼 보임)에 오신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곳에 배를 매어두고 마을 해변으로 오신다.

오무케(마중)의 땅인 해변에서 카미미치(신이 걷는 길)를 거쳐 마로 오신다.

한편 마을 뒤로는 카미야마라 불리는 산이 있는데, 마을을 지키는 신이 하늘(오보츠, 카구라)에서 카미야마에 내려오신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은 카미야마에서 카미미치를 거쳐 마로 오신다.

아샤게에서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하늘과 바다에서 온 신들을 대신해서 노로가 마을을 수호하는역할을 담당한다.

이와같은 신을 내방신이라 부른다.

아샤게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 우켄촌 우켄의 아샤게는 벽이 있고 보통 집처럼 생겼다.

가케로마지마의 아샤게는 벽이 없고 바닥과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건물로 종합전시홀 안에 있는 아샤게는 가케로마지마의 아다치 마을을 모델로 하고 있다.

마을 신을 모시는 제사와 이와 관련된 신놀이 등이 행해지는 성스러운 장소를 가리킨다.

아마미오시마의 마을 안에는 원래 신아샤게, 토네야, 스모장 및 8 월무도장이 있었지만, 점차 분리되었다. 특히 스모장을 넓은 장소로 옮긴 곳을 많이 볼 수 있다.

오보츠, 카구라: 신의 거처.

【이비가나시】

아마미오시마에서 마을 성지에 세운 자연석.

시마고즈가나시(가케로마지마식 이름)로 부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다.

가장 유명한 것이 가케로마지마 스코모의 이비가나시로, 아샤게 옆에 큰 자연석이 세워져 있다.

종합전시홀 안에 전시되어 있는 이비가나시는 세토우치초 유이의 자연석을 모델로 하고 있다.

마을(광장)에는 가쥬마루(대만고무나무)와 아호기(용나무)라 불리는 신목이 있다.

마을의 거목(전시물은 가쥬마루의 레플리카) 뿌리 부근에 이비(돌)가 여러개 놓여있는데, 이것을 이비가나시라 한다.

이비가나시는 항상 마을에 있으면서 마을을 지키는 신이므로 재주신(在住神)이라고 부른다.

시마고즈가나시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이비(돌)는 마을 건물의 원조격인 무덤과 비슷하다.

마을에 있는 가쥬마루나 큰 나무를 신목으로 보고 나무의 뿌리 부분에 돌을 놓아 수호신으로 삼았다.

주거.

쇼와 초기까지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목조 새지붕 판자벽이 많았고, 기와 지붕은 거의 없었다.

뒷마루는 원래 덧문 밖에 있었지만, 다이쇼 이후 안쪽으로 바뀌었다.
가옥의 구조는 보통 오모테(안방)와 토구라(거실, 혹은 식당으로 가족단란의 장소) 등 2동으로 되어있고, 토이마(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부자나 관리 집에는 토구라 외에도 시루데(주방 혹은 취사장)가 있다.
아마미 민가의 특징은 현관이 없다는 것이다.
오모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집 주인이나 주인의 손님으로 제한되었다.

토구라, 시루데.

전시물로 토구라와 시루데를 재현해 놓았다.
민가 안 뒤뜰에는 거실 겸 부엌이 있다.
이와 같은 민가의 모습은 쇼와 30년대까지 남아 있었다.
아마미는 아열대기후로 연간 습도가 70%이상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가지 음식 보존방법이 있다.
섬나라의 특성상 물이 부족할 때는 빗물로 대신했다.
토구라 선반위에 물의 신을 모셨다.
토방(시루데)위에는 부엌신인 히누칸(불의 신)을 모셨다.
보존식으로 음료수, 나리된장, 돼지기름, 파파야 썬케모노(야채절임), 락교 썬케모노, 마늘 썬케 모노 등이 있다.
아마미 음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된장은 각 가정에서 한꺼번에 만들어 향아리에 보존하였다.
차쵸케미스(반찬용 된장)와 시루와아시미스(된장국용) 2가지를 만들어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아마미 된장의 특징은 빨갈게 익은 소철 열매(나리)를 넣는 것이다.
된장을 만들 때에는 동네 주부들이 각자 된장을 칠 아진(절구 방망이)을 가지고 모여 서로 도와가면서 만들었다.
된장 짚기가 끝나면 기름 소면이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부들의 사교장이 되기도 하였다.
아부라타레(기름 소스)는 대부분 직접 집에서 만든 것이다.
아마미를 대표하는 음식의 하나로 돼지고기를 들 수 있는데 주로 정월용 돼지고기에서 식용과 조리용 기름을 짜낸다.
돼지 비계와 하레(지방막)를 냄비에 넣어 약한 불에 볶으면 기름이 나온다.
기름은 작은 향아리에 담아 부엌에 보존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사용한다.
보존용 용기인 카메와 썬보의 차이는 입이 작은 것이 썬보(병), 입이 큰 도자기는

카메(항아리) 다.

오모테(안채).

집의 안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객실, 침실, 응접실이 있다.

침실과 거실에는 지로(농가 등에서 마룻바닥을 사각형으로 도려 파고 난방용·취사용으로 불을 피우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침실 지로는 여름에는 사용하지 않고, 거실 지로는 여름에도 사용하는 집이 많았다.

지로 위에는 아마다라고 하는 선반이 매달려 있어 뽕감이나 생선을 올려놓았다.

아마미 공원의 놀이마당에는 센토우치초의 고시마을의 옛 민가를 복원한 새지붕 집이 있다. 이곳에는 옛날 민가 안채의 전형적인 모습이 재현되어 있다.

소철.

소철은 남국 아마미를 대표하는 식물의 하나.

아마미에 재해나 기근이 왔을 때, 선조들이 소철덕에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세부터 쇼와 초기까지 소철은 구황식물의 하나로 주요식량이었다.

현재는 관상용으로 귀중히 보존되고 있다.

옛날에는 마을 이곳저곳에서 소철을 손질하는 광경이 자주 보였다.

소철 열매(나리)와 줄기 부분에서 전분을 채취할 수 있다. 그러나 소철 전분에는 유독성분인포르말린과 사이카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손질방법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대로 독소를 빼지 않으면 중독증상을 일으키거나 죽음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독소를 제대로 뺀 후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소철에는 철분과 구리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소철 전분의 유독성분 사이카신은 수용성이므로 약 1주일~ 10일 정도 흐르는 물에 담가 발효시킨 후 햇볕에 말리면 유독성분을 없앨 수 있다.

소철 열매(나리)의 유독성분 제거 방법은 먼저 껍질을 까서 열매를 꺼낸다.

나리(열매)를 절구에 찧어 가루로 만든 후 햇볕에 말린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담가 건조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면 독소가 제거된다.

소철 줄기를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검은 비늘이 붙어있는 껍질을 벗기고, 하얀 부분을 식빵 한조각 크기로 자르고 흐르는 물에 담가 독소를 빼내고 건조시킨다.

충분히 독소를 빼낸 다음은 나리와 마찬가지로 절구에 찧어 가루로 만든다.

이것을 큰 주먹밥 크기로 동그랗게 빚어 햇볕에 말린다.
줄기 부분과 열매 부분 가루는 그대로 구워서 죽으로 만들어 먹기도 했다.
지금은 된장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바샤긴(바쇼 의복).

옛날부터 아마미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입었던 옷이 바샤긴(바쇼의복)이다.
바샤긴은 류큐바쇼라는 식물로 만들었다.
바쇼산은 현재 몇군데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다이쇼 시기까지는 섬 이곳저곳의
바닷가나 산기슭, 골짜기 같은 자갈밭은 거의 바쇼산이었다.
여름 작업복으로 대부분이 바샤긴을 입었고 겨울에는 여러겹 겹쳐입어 추위를 견디어
냈다고한다.
옛날 번 시기에는 의복도 자급자족으로 해결해야했기 때문에 바쇼산은 귀중한
재산이었다.
바샤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양질의 실이 나올 것 같은 바쇼를 꺾어 껍질을 한두 장 벗겨낸다.
이것을 찢은 다음 말린 것이 히노리바사이다.
주로 끈으로 사용된다.
작업복이나 평상복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 다음으로 중심부분까지 벗겨낸 것을 아지라바사 혹은 야하라바사라고 한다.
이것은 나들이 가디건용으로 사용된다.
.바쇼에서 양질의 실을 뽑아낼 수 있는 적기가 있다. 이때 뽑은 실은 광택이 있어
아름답다.
이것을 교라바사, 아지라바사라고 한다.
고급 의복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최적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숙련자 외에는 없다.
그 다음 단계로 큰 냄비에 지푸라기 찻물을 넣어 삶은 다음 건져내 훑고 섬유질을
빼내 강물에 하룻동안 담가놓는다.
그리고나서 장대에 걸어 말린다.
다 마르면 다발을 만들어 적당한 곳에 매달아 둔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꺼내
오오미를 한다.
오오미란 길고 가는 원료에서 섬유를 한올 한올 뽑아 실을 만들어 이것을 손에 감아
운조케(소쿠리)안에 넣는 작업이다.
이 중에서 좋은 실을 골라 틀에 감아 둔다.
이것을 카세바타에 감는 작업을 한다.

오른손에 틀을 왼손에 카세바타를 들고 틀에 감겨있는 실을 카세바타에 옮겨 감는 작업을 한다. 카세바타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 사이를 5 회전 감아돌리면 한 필(약 10.6m) 이 만들어지는구조이다.

한 필은 2 기장 8 척이었다.

지금 한 필은 3 기장이다.

앞의 작업이 다 끝나면 아제실을 이용해 카세바타에서 빼내고 방직기 작업을 한다.

바샤긴 공정은 선조들의 지혜와 노력의 결정체이며, 오늘날 아마미 전통공예와 아마미오시마의 명주 공예의 밑바탕이 되었다.

숲길.

태고적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마미는 동양의 갈라파고스로 불리며 사람과 자연환경이 공생하는 섬이다.

신이 머문다고 하는 아마미의 숲은 생명력 강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외포와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자연의 박력을 보여준다.

아마미 군도 중에서도 아마미오시마와 도쿠노시마는 깊은 산에 둘러싸여 있다.

깊은 산 속에는 수명이 100 년 이상 되는 숲의 신, 거목이 우뚝 솟아있다. 이곳에는 세계적으로보호받아야 하는 귀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아마미의 대표적인 동식물은 국가 지정 특별 천연기념물인 아마미노쿠로우사기(아마미의 흑토

끼),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아카히게(참새과), 루리카케스(까마귀과), 오오토라쯔구미(딱새과),

오오스톤오오아카게라(딱따구리과), 케나가네즈미(쥐과), 카라스바토(비둘기과), 아마미토게네즈미(쥐과), 아마미야마시기(산 도요새) 등.

그리고 수명이 100 년이나 되며 스다지이림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스미요강 상류의 카미요국유림, 희소 동식물이 서식하는 아열대 광엽수림 지대로 아마미 군도 최고봉 해발 694.4 미터우켄촌 유완다케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종합 전시홀 안에는 아마미 고유의 동식물을 실물과 같은 크기의 모형으로 만들어 소개하고,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숲의 야경을 음향과 조명을 이용해 재현하고 있다.

테마 월. 리드 문장.

아마미에서 바다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이곳 마을의 선조들은 자주 바다를 바라보곤 했다.

조수간만의 변화나 달이 차고 기우는 것으로 사람들은 시간이나 기후를 예측하고 고기잡이나 농사 짓는 시기를 결정하는 풍습이 있었다.

현재, 달력은 양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농사 짓는 과정과 흐름이 음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연중행사(명절)는 음력으로 지내고 있다. (마을에 따라서는 추석을 양력으로 지내는 곳도 있다.)

연중행사란 계절의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의 혜택에 감사하며 매해 되풀이되는 집단적전승행사를 말한다.

남쪽 섬지방 아마미에서는 풍작을 기원하는 절기(제사)와 자연재해가 피해가기를 기원하는 절기를 중심으로 1년 활동이 이루어진다. 벼농사 지역은 음력 10월 파종(작물의 씨앗을 뿌림)부터 다음 해 6월 수확할 때까지 힘든 노동과 금기(신을 맞이하는 제사 기간 동안, 음식을 가려 먹고 행동을 조심하는 등 부정한 것을 피하고 몸과 마음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의 시기를보낸다. 나머지 3개월간은 갖가지 금기에서 해방된 환희와 축제의 기간이다.

노보루 쇼무씨는 「대아마미역사」의 서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 아마미오시마는 류큐와 함께 일본 문화 최남단 지역으로서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특성있는 문화권을 구성하고 있다.

다만 남방 벽지(주①)라는 지리적 위치 탓에 지금까지 문화적으로 혜택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고립된 생활과 불편했던 환경이 고대 문화를 보존하는 데 일조했다. 일본 상대의 귀중한 문화를 원시시대 그대로 순수히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지역의 자랑 거리이다.

실제로 아마미제도는 일본 본토에서는 이미 소멸한 고대의 풍습이나 언어, 토속문화가 많이 남아 있다. 이것만 봐도 아마미오시마가 충분히 일본 상대 문화의 보고로서 그리고 박물관으로서 귀중한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다.

아마미오시마는 지리적으로 사츠마와 류큐사이에 있고 일본과 대륙 및 남쪽 바다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였다. 일찍이 문화적 운반로와 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해왔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옛날에는 아마미의 정신 세계를 상징하는 노로제사를 중심으로 1년의 흐름이 정해졌다. 노로제사와 함께 일반가정에서 행해졌던 연중행사(풍습·민속·문화를 엿볼 수 있는)를 쇼와 30년대 사진과 함께 테마월에서 볼 수 있다.

주①: 외진 곳.

벽지. 오무케(마중).

아마미에서 노로가 테루코신(산의 산물의 신)과 나루코신(해산물의 신) 등 내방신을 맞이하는 축제.

세토우치초 기지에서는 음력 2월 중 미즈노에(壬)날 토네야(주석 1)에서 이루어진다. 3일 전에 아타리(당번)는 집집마다 쌀 한 되씩을 걸어 미샤쿠(제주)를 만들고 토네야 기둥에 밧줄로 묶어둔다.

그 다음 노로가 토네야에 가서 축사를 읽는다.

당일 노로들은 토네야에 모여 제주를 마신다.

신은 오무케(마중)부터 오후리(배웅)까지 토네야와 아샤게(주석 2)에 계신다고 한다

주석 1: 토네야.

노로가 사는 곳.

노로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함.

위토네야, 아래토네야가 인접해있다.

토네야가 둘다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곳은 나제시 오쿠마뿐이다.

주석 2: 아샤게.

노로 행사가 있을 때, 마을에 신을 맞이하는 곳.

아마미 공원 안에 전시되어 있는 아샤게는 아마미오시마 남쪽에 있는 가케로마지마 서쪽 부근의 아다치 마을에 있는 것을 모델로, 새 재료를 사용해 재현한 것이다.

신에게 바치는 음식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미키.

그릇에 담겨 있는 하얀 것이 미키이다.

카라이모(고구마)로 만들었고 그 옆 냄비에 조리 감자가 들어 있다.

병에 넣어 바쇼 앞 뚜껑으로 덮고, 3일간 발효시킨다.

소반에 올려놓은 것은 산신과 바다신에 바치는 공물이다.

오후리(배웅).

아마미에서 노로가 내방한 테루코와 나루코(산과 바다)를 보내는 축제.

음력 2월 미즈노에(壬)날에 맞이한 신을 4월 미즈노에날에 보낸다.

세토우치초 가케로마지마의 세소에서는 축제가 끝나면 신이 배로 떠난다고 믿어, 노로들이 토네야에서 해변까지 카미미치(신이 걷는 길)를 나루헤~ 테루헤~ 하며 걸어갔다.

해변에 이르면 노로들은 바다를 향해 손을 흔들며 신을 배웅하고 토네야로 되돌아간다.

세토우치초 요로시마에서는 해변가 바위에 묶어 둔 배의 밧줄을 푸는 동작을 하기도 한다.

③아라호바나

가케로마지마에서 행하여 지는 노로에 의한 벼의 그 해 말물축제.

민간에서 행하여 지는 그 해 말물축제는 【시쿄마】 등이라고 말하여진다.

세토우치초 아다치에서는, 구력 6 월 · 처음의 무의 날을 【우치기헤이】 라고 말하고, 노로는 【아샤게】 에 모인다.

【구지】 (주석 3)노로가 수전에서 7 개의 벼 이삭을 뽑아 오면, 소절구(절구)에 그 벼(전나무(벼))의 이삭을 떨어뜨린다.

벼 이삭은 【토네야】 에 장치해 둔다.

그 다음에 오는 달 안의 무의 날이 【아라호바나】 에서, 노로는 【토네야】 에 교배시켜 둔 벼 이삭으로 소절구 위를 3 회 돌려 제사 지낸다.

주석 3 「 【구지】 」

아마미 노로 행사의 반찬 노로나 【우쯔칸】 의 돕는역에게 달는 남성신역.

【구지누시】 라고도 말한다.

친노로 1 명과 【우쯔칸】 2 명에게 각 1 명씩 붙는다.

【구지】 도 노로로 같이, 결정된 가계인으로부터 골라 내진다.

친 【노로구지】 는, 친노로의 주거 하는 하 【토네야】 의 관리의 이외, 제제사의 여러 방면도구를 관리하고, 축제의 준비의 배후 역할자역등을 맡는다.

번의 행정시대, 각각의 【구지】 는, 【테지리】 논 · 【테지리】 밭이라고 불리는 직장 (미쳐) 논 (나오지 않는다)을 경작하고, 거기에서 된 미이나 작물을 제사용에 사용하고 있었다.

친노로

아마미에서의 신앙을 담당하는 노로의 중심역.

왕부시대, 제정일치의 정책을 재기 위해서, 상급역인의 딸에게서 골라 내졌다.

보좌역에게 【우쯔칸】 이 2 명 있었다.

이 3 명은 노로 3 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직무상이다.

이 3 역에게는, < 【테지리】 논 · 【테지리】 밭 >이 주어져, 그 전답에서 농산물이 만들어진다.

수확한 작물은 노로 제사나 노로용에 내밀어졌다.

④ 【우훈메】 · 【후운메】 (대 오리메)

가케로마지마에서 구력 6 월에 행하여 지는 노로의 신축제의 하나.

구력 6 월 안의 무의 날, 경의 날와 촌락에 의해 기일은 다르지만, 조의 그 해 말물축제라고 말해지고 있다.

축제는 벼의 그 해 말물축제인 【아라호바나】 와 전혀 같아서, 3 일 【미샤쿠】 (제주)을 뒤섞는데도 조의 그 해 말물을 가져서 하는 점이 다른 것

뿐이다.

제주는 흰개미에게 해쳐지지 않는 것 같이, 【아샤게】 나 【토네야】 의 기둥의 뿌리에 쏟았다.

⑤ 【미냐쿠치】

가케로마지마의 노로에 의한 벼의预祝행사.

【미냐쿠치】는 [물을 끌어들이거나 흘러 빼는 목]라고 하는 의미인 듯하다.

사쑤카와등 4 촌락에서 현재도 행하여 지고 있다.

마을의 아따리(당번)의 여성이 2 일전의 정미의 날에, 집집에서 미(쌀)을 모아분으로 한 것을 삶고, 순의 고구마의 소매치기 국을 더해서 병에 【미샤쿠】(제주)의 준비를 한다.

【아샤게】에 벌레 러를 깔아서 신인(【카민츄】)들이 앉고, 제주를 마시고, 풍작을 기원하는 축사를 외친다.

【아라호바나】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벼의 수확 감사·预祝감사의 최후에 다면 생각되는 축제.

아마미오시마 우켄손 이케가치에서도 7 월 1 일에 【미냐쿠치】 제사가 있었다.

당일, 【구지누시】(남성신역)과 노로가 논의 미냐쿠치에 가서 팽이를 3 회 넣고, 제주를 쏟아서 외쳐채를 했다.

숫초가마.

음력 8 월 첫 丙의 날(아라세츠)에 아마미오시마 다츠고초 아키나에서 지내는 수확감사제, 풍작기원제.

같은 날 히라세만카이도 개최된다.

산지쪽 높은 곳에 초가지붕 오두막을 짓고, 아침 일찍 태어나 처음으로 축제를 맞는 남자아이에게 지붕을 밟게해 그 아이의 성장을 기원, 그 후에 남자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구지가 벼의 영령을 초대하는 노래를 부르면 합창하며 오두막을 흔든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오라, 메라>를 외치고 오두막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한다.

오두막이 무너지면 그 위에서 하치가츠오도리(8 월춤)를 추며 추수감사와 내년 풍작을 기원한다.

숫초가마 행사가 <새벽-남성-수직신>인데 대해, 히라세만카이는 <저녁-여성-수평선신>의 형식을 취한다.

히라세만카이.

음력 8 월 丙의 날(아라세츠) 아마미오시마 다츠고쵸 아키나에서 지내는 수확감사와 풍년기원 행사.

같은날 새벽에는 슷초가마도 개최된다.

마을 서쪽 해변에 있는 <진히라세>와<메라베히라세>라 불리는 바위 위에서 이루어진다.

<진히라세>에는 친노로와 노로가 5 명, <메라베히라세>에는 남녀 카민츄(神人)7 명이 올라가번갈아 노래를 부르며 벼의 영령을 부르는 동작을 반복한다.

이것은 바다 저편(수평선)에 있는 신들을 불러 추수 감사와 내년 풍작을 기원하는 것이다.

<진히라세>는 찰밥을 평평한 돌 2 개 사이에 넣어 이것을 공물로 바친다. 처음으로 축제를맞는 여자아이는 바위를 밟게 하는데 이는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해안에서 마을 전체 연회가 끝나면 밤에는 하치가츠오도리(8 월춤)를 춘다.

⑧ 【후유운메】 (겨울 오리에)

가케로마지마의 노로에 의한 감자의 수확 감사·미리축의예.

구력 11 월 무의 날, 【토네야】에서 실시한다.

【가 | 기누】(신의복)·【가미사지】(신 술가락)·【카부리카즈라】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주는 3 일 【미샤쿠】를 준비한다.

주로 토란·참마·고구마를 고밥상에 태워서 바친다.

신인들은 그것을 전에, 제주를 마셔서 외쳐 것을 한다.

마을사람은 직접 이 제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정월.

도코노마(일본식 방의 상좌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에는 소나무 장식과 가가미모치(둥글 납작한 떡을 두개 포개 놓은 것), 그리고 산부시케(삼보)라 불리는 소금(소복히 담음)과 다시마, 말린 생선을 올리고, 큰 접시에 야츠가시라(토란:축하의 의미)와 무로 만든 학과 거북이를 장식하고, 벼룻집 뚜껑(옛날, 꽃과 과일 등을 담는데도 썼음. 돼지고기와 야채를 소복히 올림)과삼현대(옛날에, 술상을 내어 술을 석 잔 마시게 한 후 상을 물리고, 이것을 세 번 되풀이한 일) 등을 장식하였다.

날이 밝으면 도코노마 앞에 전 가족이 모여, 가장부터 남자 여자 순으로 앉아

삼헌의식을 치렀다.

와카미즈.

정월, 날이 밝으면 샘이나 우물에서 가장 먼저 뜬 물을 와카미즈라 한다.

지금은 음력 보름날 아침 일찍 와카미즈를 떠서 노로신에게 차려 둔다.

스모 경기에서는 이 물을 치카라미즈(씨름꾼이 입 안을 헹구기 위하여 준비해 둔 물)에 넣어사용하는 곳도 있다.

삼헌.

아마미에서 정월 같은 명절에 행하는 의식.

명절날 아침 가장을 포함 5명 혹은 7명(홀수일 것)이 모여 차린 음식을 먹는다.

먼저 7 가지 재료를 넣은 맑은 국과 회 두 점, 닭고기만으로 만든 맑은 국으로 삼헌의식을 치른다.

동시에 술과 산부시케(소금, 다시마, 말린 생선)를 가장을 시작으로 모두가 나누어 먹는다.

3월 3일.

아마미, 오키나와의 연중행사

아마미 전역에서 음력 3월 3일, 도쿠노시마에서는 음력 7월에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3월 3일에는 떡을 만들어 조상께 바친다.

남녀노소 해안으로 가서 조개잡이를 한다.

3월 3일, 해산물을 먹지 않으면 귀가 안들리게 되거나 일년 내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요론토에서는 처음 3월 3일을 맞는 아이에게 바닷물을 끼얹거나 바구니를 들게한다.

만약 아이 집에 출산이나 장례식 같은 부정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 날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도쿠노시마에서는 음력 7월 백중 다음에 오는 丙(히노에), 丁(히노토), 戊(츠치노) 3일간에 걸쳐하마오레를 한다.

하마오레: 논이나 밭에 가서 벌레를 잡고 그 벌레를 잎에 싸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행사. 마을 사람 모두가 바다로 나와 여러가지 놀이를 하며 하루를 보낸다.
丙은 준비하는 날로, 해안가에 간단한 가옥을 만들고 산호석 3개로 부뚜막을 만든다.
丁에는 찰밥을 만들어 나들이 옷을 입고 전원이 해변으로 나간다.
태어난 지 1년이 안된 아이들에게는 이마에 바닷물을 적셔주고 해안의 하얀 모래를 밟게한다.

무시오쿠리(마네아시비, 하마오레): 농작물의 해충을 몰아내는 행사.

논과 밭의 해충인 쥐, 메뚜기, 달팽이를 잡아서 바다로 흘려 보내는 해충구제를 기원하는 행사.

아마미오시마 세토우치초 쿠다돈에서는 하츠마네날(음력 4월 첫午의 날) 밭에 가서 해충을 잡고 토란잎에 싸서 흘려보내는 하마오레를 하였다.

가케로마지마도 같은 식으로 무시오쿠리를 하지만, 그 시기가 둘로 나뉜다. 음력 4월 첫 寅의날인 토라아시비와 첫 申의 날인 사네아시비가 있는데 마을에 따라 행사날이 다르다.

기카이시마는 음력 4월에서 6월 甲子の 날 사탕수수 잎에 올려 바다로 흘려보냈다.

도쿠노시마 동북부 지역에서는 음력 3월 申子の 날 무시오도이(벌레춤)를 추고 해질 녘 구바배와 함께 흘려보냈다.

아마미오시마와 도쿠노시마에서는 무시오쿠리가 뱀을 쫓기 위한 행사인 아지라네나 나아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아네.

4월 첫 午날은 하츠마네라 하여 일을 쉰다.

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내는 제사.

4월중 午날이 3번 있는 해는 마아네를 3번 한다.

이 날은 특별히 정해진 의식은 없지만 예전부터 각 가정에서는 부추 즙을 마시고 그 외에 밀가루에 흑설탕을 섞어 먹었다.

이것을 핫타이가루라고 한다.

이 때쯤이 보리 수확기이다.

5월 5일.

단오.

음력 5월 5일.

옛날에 귀신에 쫓긴 사람이 청포밭에 숨어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지금도 처마끝에 청포와 쭉을 걸어두어 악마를 쫓아내고 만병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아쿠마키(대나무 껍질로 썬 찹쌀떡) 등을 만들어 영령에게 바친다.

시코마.

.아마미 벼 말물(햅쌀) 축제로 벼농사 의식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예전엔 노로제사로 지냈던 아라호바나를 요즘은 일반 가정에서 지낸다. 이런 연유로 시코마, 시쿄마, 이나이쿠마(나제시 주변), 우치키헤(가케로마지마)등 지역에 따라 다른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음력 6월, 집안의 모든 생활도구를 깨끗이 정리하고 집앞을 청소한 후 논에 나가 벼이삭을 베어다 신에게 올리고 햅쌀로 밥을 짓어 신에게 올린 다음 온 가족이 함께 먹는다.

나제시 주변 지역에서는 저녁 무렵 벼이삭을 베어(3줄기) 도코노마에 올린다.

오시마 북부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햅쌀을 섞어 지은 밥을 들고 마을의 높은 곳이나 바닷가로 나간다. 그리고 벼이삭이 잘 여물도록 기원하는 마음에서 논이름을 부른다. 시쿄마 후에 오는 丙의 날(안가시키) 처음으로 햅쌀을 먹는다.

백중 행사.

음력 7월 7일은 다나바타이다. 아침 일찍 성묘를 가서 조상님께 다음 주부터 추석임을 알린다.

.13일 아침, 다나바타 때 썼던 대나무 중, 가지가 붙어있는 부분은 바다로 흘려보내고 줄기부분은 묘앞에 놓을 꽃을 꽂는 통으로 사용한다.

.저녁 무렵 초롱을 켜고 산소에 조상님들 마중하러 간다.

그리고 떠도는 영혼이나 원혼을 위해 마당에 미즈다나라고 하는 상을 차려 공물을 올린다.

위패는 불단에서 도코노마나 따로 마련한 제단으로 옮기고 제단 위에는 향, 꽃, 과자, 외지에서 들어온 공물(주로 찌서 만든 과자, 과일, 야채 등), 차, 술을 올린다.

단 밑에 화문석을 깔아 상을 차리고 병풍을 친다.

상은 위패수에 맞춘다.

14일과 15일은 아침과 저녁상을 따로 차린다. 다이쇼시대 이전에는 전부

정진요리(채소로만 만든 음식)였지만, 요즘은 집집마다 제각각이다.

.미하치가츠.

아마미오시마에서 음력 8월에 이루어지는 행사.

아라세츠, 시바사시, 돈가 3대 명절을 뜻한다.

음력 8월은 행사가 많은 달이다.

벼, 조, 사탕수수의 수확이 끝나고 토란, 고구마 등 음식이 가장 풍부한 계절로 미니시(북풍)가 불기 시작해 달이 아름답게 비치는 시기이다.

아라세츠.

음력 8월 첫 丙의 날이 아라세츠이다.

전날을 시카리일(시카리란 작업 준비의 의미로, 축제를 위해 준비하는 작업이나 전야제를 가리킨다)이나 유하시(밤새기)라 한다. 아라세츠 축제를 준비하는 날이다.

주부는 떡을 만든다.

이날 밤부터 하치가츠오도리를 추는데, 처음에 토네야(노로의 주거)에서 시작해 집집마다 춤을 추며 돈다.

아라세츠에는 고소가나시 제사를 지낸다. 주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로 가 바닷물을 끼얹어 몸을 깨끗이 씻고 햇곡식, 떡, 토란, 생선, 술로 상을 차려 도코노마 앞이나 킷마루에 둔다.

이날 찰밥을 짓고, 밥 지은 물을 참억새에 묻혀 집 안팎으로 뿌린다.

이것을 세치바케순(절기를 바꾸다)이라고 한다.

아라세츠 다음날은 게시바테(휴일)라 하여 일을 쉰다.

시바사시.

.아라세츠로부터 7일 후인 壬의 날이 시바사시이다.

고소가나시가 무덤에서 나온다고 전해져 전날 아침 일찍 성묘를 한다.

집 처마끝과 밭 구석구석에 참억새를 꽂아둔다.

또 고소가나시를 맞이하기 위해 저녁 무렵 대문 앞에서 벼껍질이나 풀로 연기를 피운다.

하치가츠오도리를 아라세츠와 같은 방법으로 춘다.

다치고초 아키나에서는 아라세츠날 아침 일찍, 솟초가마와 히라세만카이를 한다.

돈가.

시바사시 다음에 오는 甲子날을 돈가라고 한다. 아미오시마 북부 지역에서는 8 월 행사의마지막 날인 시카리날 이장을 한다.

이날 토란을 섞어 만든 밥을 먹는 곳이 많다.

돈가는 미하치가츠 행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된다. 이날은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에 돌아가 성묘를 한다.

아미오시마 남부 지역에서는 돈가로부터 8 일째 되는 날인 辛未에 토모치라는 8 월행사가있다.

전날에는 이장과 유골 씻기(주석 5)를 하고, 당일에는 성묘를 한다.

즉 여름의 마지막 행사가 돈가이며 아미오시마 남부 지역에서는 토모치이다.

이후로 남아있는 중요한 행사는 정월뿐이다.

미하치가츠(8 월 행사)는 조상을 모시는 제사와 농경 의례가 공통적 요소이다.

주석 5: 이장, 유골 씻기.

매장한 시체나 관은 언젠가는 썩기 마련이다.

이래서는 정토(구슈구쿠라쿠)세계에 갈 수 없다. 따라서 흙을 털고 부패한 육신의 얼룩을 씻고 극락 세계에 갈 수 있도록 깨끗이 씻어줘야 한다.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이장을 해줘야 한다.

이장의 의의는 깨끗이 씻어 줌으로써 구슈구쿠라쿠(극락)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구슈는 후생을 의미한다. 사람은 죽어 저 세상으로 가 후생을 산다고 하는 신앙이다.

이장은 살이 전부 부패되어 흙이 된 후, 뼈만 남아있을 때를 헤아려 행한다.

이장 시기는 지질 상태에 따라 다르다. 부패가 빠른 곳은 3 주기가 지난 다음해나 다다음 해에 행하고, 부패가 느린 곳은 7 주기를 마친 후 이장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통 이장을 하면서 묘비를 세우는데 경제적 사정에 의해 이장 시기가 미루어 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장을 해서는 안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이장을 계획했다고 해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이장시기는 정확히 정할 수 없다.

이장할 수 없는 해란 음력으로 윤년이 들었을 때와 집안에서 상을 당했을 때이다.

이장날은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그 날짜는 마을에 따라 정해져 있다.

「대아미역사」에는 음력 9 월 19 일로 나와있고, 「요론도의 민속」에는 10 월 27 일이나 29 일로 나와있다.

나제시 네세부에서 야마토촌까지를 비롯, 그 외 지역에서도 대부분 돈가의 시카리날(전날)에 이장한다. 카네사루를 모시는 지나세에서도 시카리날(돈가 전날)에 하는 듯하다.

이장할 묘를 파는 작업은 죽은 이의 근친(손자, 조카 등)이 하고, 유골이 나올 쯤에는 죽은 이의 자식이나 형제가 행한다.

유골에 햇별이 달지 않도록 죽은 이의 부인이나 어린 여자아이(딸이 있으면 딸이 든다)가 우산을 들고 있다가 유골이 나오면 받는다.

묘지에서 유골 씻기가 끝나면 이장한 집으로 가서 유골을 깨끗이 했다는 의미로 축하를 한다.

9월 9일.

음력 9월 9일에 행하는 건강 기원 행사

중국의 음양사상에 근거한 5절 중 하나인 ‘중양’, ‘중양절’을 말한다.

작년에 빌었던 소원을 정리하고 올해 새로운 소원을 빈다.

전날 미샤쿠(술)를 만든다.

당일 오전에는 작년에 빌었던 소원을 정리하며, 해질 무렵에는 올해의 소원을 기원한다.

오전 행사에는 술과 생선이나 야채로 만든 조린 음식을 올리고 저녁 행사에는 쌀 3말 3되와술(소주)을 올린다.

집에서 할 경우에는 야관(家願), 절에서 할 경우는 테라관(寺願), 해변에서 할 경우는 하마관(浜願)이라 한다.

작년에 빌었던 소원을 정리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무치모레.

떡 얻기.

변장한 아이들과 청년들이 춤을 추면서 쌀가루와 설탕 고구마를 섞어 오키나와 허브 앞에 싸서 찐 카샤떡을 받으러 마을 집들을 도는 행사.

아마미오시마와 도쿠노시마에 분포.

아마미오시마 북부 지역에서는 음력 9월 9일부터 10월의 庚申의 날에 이루어지므로 카네사루(원숭이), 타네오로시로 불린다.

타네오로시란 원래 다른 것을 칭했지만, 언제부터인가 합쳐졌다는 설이 있다.

나제시 아시케부에서는 쥬카탐, 오시마남부와 도쿠노시마에서는 타네뭇치, 무치타보리, 아키무치 등으로 불린다.

도쿠노시마쵸 카미노미네에서는 각 가정을 돌 때, 구카네이시라고 하는 돌을 정원에 떨어트리고 <... 먼 형제와는 먹는 추억, 가까운 형제와는 노는 추억, 쿠가네와 떡을 바꿔 주세요.>라는 노래를 불러 떡을 받았다.

이센쵸 이누타부에서는 잇산보라는 지푸라기 인형을 선두에 내세웠다.

무치모레는 각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세토우치쵸 도렌에서는 6 월, 도쿠노시마쵸 테테에서는 백중날 15 일에 행해진다.

鹿 児 島 県

奄美パーク

奄美の郷

〒894 - 0504

鹿児島県奄美市節田1834

Tel 0997-55-2333

Fax 0997-55-2612

田中一村記念美術館

Tel 0997-55-2635

Fax 0997-55-2613

Kagoshima-Prefectural Amami Nature And Culture Center